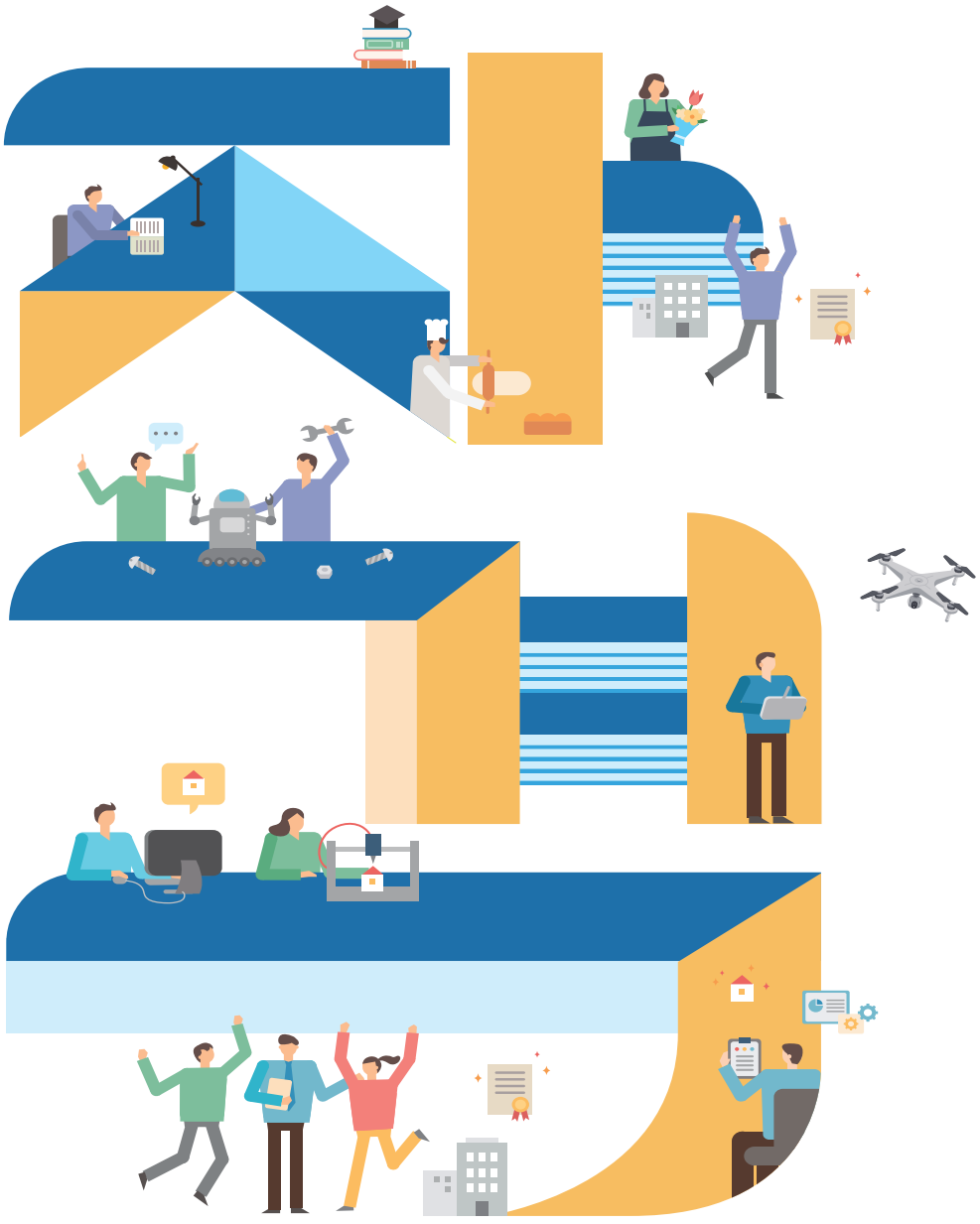
사람과 성장을 이어주는 한국산업인력공단

HRDKorea

2021 JANUARY vol. 295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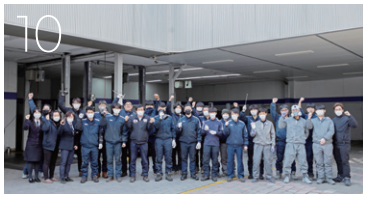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01

2021
JANUARY
vol. 295

발행일 2021년 1월 1일
발행인 김동만
편집인 김선영
등록번호 울산중, 라00006
등록일자 1982년 9월 29일
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홍보실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전화 052.714.8195
팩스 052.714.8200
제작 디자인글꼴
디자인 류경민
글 김민정, 김혜민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591-1
전화 051.636.1210
www.ggad.co.kr

QR코드를 스캔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보 구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 사람을 생각하다

04 : HRD 오피니언
세월을 관통하는 '도전 정신'

06 : ON HRD
2021년 국가자격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08 : 한눈에 HRD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드는 초석 국가기술자격

10 : 공들人 인터뷰
일학습병행, 4차산업혁명 시대의 마중물이다
㈜만안자동차정비서비스

적 자리를 찾다

14 : 명장의 수선실
나는 언제나 현장(現場)의 명장(名匠)으로 남고 싶다

18 : 꿈지락 꿈지락
에메랄드빛 희망

20 : HRD 투게더
'공정성'이라는 지표 위에 '정성'을 채우는 이들 사회가치성과부 비전 압화 드로잉 도전

24 : 상생과 협력
공단 상생협력관 참여기업 달달홀릭

자 스스로 행하다

28 : 여행 愛시피
비밀스럽게 행복하게 - 인제군

30 : 트렌디한 자격
대세는 언택트(untact), 거리두기의 여백을 채우다

34 : 슬기로운 언택트 생활
방구석에서 즐기는 '취미생활보고서'

36 : 건강이 스펙
'귀와 발'을 보면 당신의 건강이 보인다

원 하나로 모으다

38 : 직통 직방
바야흐로 '인증서 춘추전국시대'로다

40 : 청렴학 칼럼
코로나19와 부패

42 : HRD NEWS

44 : 독자이야기

월간 「HRD KOREA」는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외국인고용지원, 해외취업, 숙련기술장려 및 기능경기 등 국가인적자원개발(HRD) 사업에 대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매월 제작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게재된 외부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산업기반을
지탱해준 불빛,
우리의 미래를
그려나갈 불빛.

Light & Light

빛을 뿜어내는 자리는 다르지만,
모두 사람을 향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의 불빛을 위한 길,
국가기술자격이 앞장섭니다.



挑戰精神

HRD Opinion

세월을 관통하는 '도전 정신'



서울 양재동에는 파독근로자 기념관이 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초석이 된 파독근로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파독 50주년이 되던 2013년 건립됐다. 1960~70년대 파독근로자가 벌어들인 외화는 고국에 있는 가족의 생활비가 됐고 비료·자동차 등 산업발전을 견인하는 밑거름이 됐다. 1963년 광부 123명이 처음 출발한 이후 70년대 후반까지 독일로 떠난 근로자는 광부 8,000여 명, 간호사·간호조무사 1만100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일자리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낯선 문화, 통하지 않는 언어에도 불구하고 이역만리 타국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처럼 과거에는 국내 취업시장 여건이나 경제적인 사유로 해외취업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지금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글로벌 경험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쌓고 성장의 기회를 찾는 측면이 강하다. 올해 초 공단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해외취업에 만족하는 주된 이유로 '글로벌 업무경험을 통한 경력개발(41.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남과 다른 차별화된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 해외취업에 도전하고 있다.

공단은 다양한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해외취업 도전을 지원하고 있다. 외국어 등 글로벌 역량을 이미 갖춘 청년이라면 공단 해외통합정보망인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를 통해 해외일자리 탐색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직무역량과 언어능력이 부족하다면 K-MOVE 스쿨을 통해 업무스킬과 외국어 구사능력을 쌓은 후 해외취업에 도전하면 된다. 공단은 해외취업자의 안정적인 현지 정착을 위해 해외취업정착금도 지원한다. 지난해 정부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꿈에 다다른 해외취업자는 6,816명에 달한다.

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김동만

HRDK

2020년은 코로나19로 해외취업을 주관하는 공단도,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도 어려움을 겪었다. 국가별 입국제한에 취업비자 발급이 보류되고, 국내·해외 현지연수가 중단되기도 했다. 하지만 청년 일자리와 연계된 만큼 공단은 기민하게 일하는 방식을 바꿔 돌파구 마련에 힘썼다. 온라인 고충상담센터를 통해 비자발급 동향 등 구직자 필요정보를 적시에 제공했다. 1:1 온라인 상담환경을 구축하고, 현지 취업자를 연결한 실시간 해외취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내 연수는 비대면 강의로 전환해 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했다. 채용절차 마지막 관문인 면접도 화상으로 실시해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취업 난관을 극복하고 있다. 청년들도 코로나19로 위축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해외취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드러냈다. 지난달 공단이 온라인으로 진행한 '해외취업 Cheer-up 행사'에 658명의 구직자들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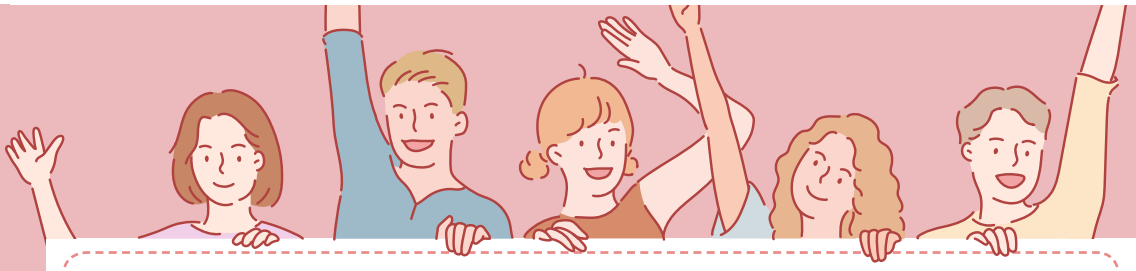
하지만 닫힌 하늘길을 여는 것은 어려운 과제였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처럼 포기하지 않았다. 끝내 하늘길을 열었다. 7월 기업인 베트남 특별입국 언론보도를 눈여겨본 담당자가 아이디어를 냈다. 특별기 여유 좌석에 해외취업 연수생을 함께 보내는 것. 비행기 섭외, 자가격리 장소 확보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청년들의 도전을 위해 공단은 유관기관·경제단체 등과 함께 출국과정을 철저히 준비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 현지연수를 중단한 지 7개월 만인 지난 9월, K-MOVE 스쿨 연수생 33명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180명의 청년들이 해외취업의 꿈을 품고 베트남으로 떠났다.

코로나19는 분명 우리 모두에게 위기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청년들이 꿈꾸는 미래와 이를 성취하기 위한 도전에서 시작된다. 해외취업은 일자리 영토를 넓히는 동시에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은 글로벌 경험으로 이어져 청년의 내일을 성장시킨다.

공단도 줄탁동시(啐啄同時), 껍질을 깨는 어미 닭의 심정으로 청년들이 세계로 도약하는 변화의 순간에 발맞춰 해외취업의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김 동 만

啐(줄) 啄(탁) 同(동) 時(시)



2021년 국가자격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년도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일정 및 주요 변경사항

정기검정 시행일정

등급		회별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시험시행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응시자격 서류제출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면접)시험 시험시행	실기(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기술사		제123회	1.5~1.8	1.30(토)	3.5(금)	2.1~3.16 (휴일제외)	3.8~3.11	4.10~4.20	5.7(금)
		제124회	4.27~4.30	5.23(일)	7.2(금)	5.24~7.13 (휴일제외)	6.14~6.17 7.5~7.8	8.8~8.17	9.3(금)
		제125회	7.6~7.9	7.31(토)	9.10(금)	8.2~9.24 (휴일제외)	9.13~9.16	10.16~10.26	11.12(금)
기능장		제69회	2.2~2.5	2.20(토)	2.26(금)	2.22~3.10 (휴일제외)	3.2~3.5	4.3~4.21	4.30(1차) 5.7(2차)
		제70회	6.8~6.11	7.4(일)	7.16(금)	7.5~7.27 (휴일제외)	7.19~7.22	8.21~9.8	9.17(1차) 10.1(2차)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	기사 서비스	제1회	1.25~1.28	3.7(일)	3.19(금)	3.8~3.30 (휴일제외)	3.31~4.5 (휴일제외)	4.24~5.7	5.21(1차) 6.2(2차)
	산업기사		1.26~1.29	3.2~3.12			4.1~4.6 (휴일제외)		
	기사 서비스	제2회	4.12~4.15	5.15(토)	6.2(수)	5.17~6.11 (휴일제외)	6.14~6.17	7.10~7.23	8.6(1차) 8.20(2차)
	산업기사		4.13~4.16	5.9~5.19			6.15~6.18		
	기사 서비스	제3회	7.12~7.15	8.14(토)	9.1(수)	8.16~9.10 (휴일제외)	9.13~9.16	10.16~10.29	11.12(1차) 11.26(2차)
	산업기사		7.13~7.16	8.8~8.18			1.14~9.17		
	기사 서비스	제4회	8.16~8.19	9.12(일)	10.6(수)	9.13~10.15 (휴일제외)	10.18~10.21	11.13~11.26	12.10(1차) 12.24(2차)
	산업기사		8.17~8.20	9.5~9.15			10.19~10.22		
기능사		제1회	1.12~1.15	1.31~2.6	2.26(금)	해당없음	3.2~3.5	4.3~4.21	4.30(1차) 5.7(2차)
		제2회	3.30~4.2	4.18~.4.24	5.7(금)	해당없음	5.10~5.13	6.12~6.30	7.9(1차) 7.16(2차)
		제3회	6.8~6.11	6.27~7.3	7.16(금)	해당없음	7.19~7.22	8.21~9.8	9.17(1차) 10.1(2차)
		제4회	9.7~9.10	10.3~10.9	10.22(금)	해당없음	10.25~10.28	11.27~12.15	12.24(1차) 12.31(2차)

- 기사·서비스 분야 일부종목은 기사 제4회 필기시험부터 CBT 시험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험일정을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 필기시험 면제자검정 신청기관은 원서접수기간 전, 공단에서 정하는 별도기간까지 관련 서류를 사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1년도 국가기술자격 검정 주요 변경사항

❶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 회별 통합

- 기존에 운영되었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을 타 회별(기능사 제2, 3, 4회)과 통합 시행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 필기시험 면제자검정 신청기관은 원서접수 기간 전, 공단이 정하는 별도기간까지 관련 서류 사전제출 요망

❷ 상시검정 종목 조정

- 건축도장기능사, 방수기능사 2종목은 정기검정과 상시검정 병행 시행

※ 건축도장기능사, 방수기능사 상시 실기시험은 공단 자체시험장(안성국가자격시험장, 부산국가자격시험장)에서만 시행되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취업 및 창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설분야 기능사 등급 일부종목은 정기검정과 상시검정을 병행 시행할 수 있음

❸ 기사·서비스와 산업기사 원서접수 분산실시

- 기사·서비스와 산업기사 필·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이 다르니 유의바람

❹ 산업기사 전종목 CBT 시행

- 2021년 산업기사 전종목 대상으로 CBT 시행

※ 기사등급 및 서비스분야 일부종목은 기사 제4회 필기시험부터 CBT 시행으로 전환될 수 있음

❺ 응시자격 서류심사 일정 조정

- 필기시험 시행일 이후부터 지정된 기간까지 응시자격서류심사 실시

※ 기사·산업기사·서비스는 실기시험 원서접수전에 응시자격서류심사가 마감됨

❻ 검정시행 조정제도 도입

- 검정수요, 산업동향 등 고려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의 경우 필기시험을 격년제로 시행하는 제도 '22년 도입
- (도입대상) 최근 3년간 필기시험 연평균 응시인원이 50명 미만인 종목

❼ 2021년 신규 정기검정 시행(2020년 신설 자격종목)

종목명	소관부처	시행회별
신발산업기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사 제3회

❗ 2020년 신설 종목 수시검정(필기시험 '20. 11. 15 시행, 실기시험 '21년 상반기 시행 예정)과 별도로 시행

※ 자세한 내용은 큐넷(Q-net)에서 확인해주세요.



HRDK

국가기술자격 통계와
2021년 시행 종목을 알아보자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드는 초석

국가기술자격

신뢰와 공신력을 기반으로 한 국가기술자격.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자
전 국민 자기 계발의 선두에 이 국가기술자격이 있다.
2015년 과정평가형 자격이 도입되면서
국가기술자격은 자격에 따라 검정형, 과정평가형,
혹은 두 가지 병행 시행 중이다.
2019년 기준(2020년 집계 전) 검정형 및
과정평가형 자격 통계와 2021년 국가기술자격
시행 종목에 대해 알아보자.

2021년
국가기술자격
시행 546종목 중
한국산업인력공단
관할



기술사
84(79)

기능장
28(27)

기사
119(108*)

* 한국산업인력공단 관할 정밀화학기사 제외('22년 시행)

산업기사
122(114)

기능사
161(153)

서비스
32(14)

'21년 신설 종목 없음

자료제공. 능력평가기획부

2019년 취득자 (단위: 명)

합계 773,704 명

검정형 합계 769,424

기술사 2,227	기능장 4,365	기사 114,883
산업기사 57,527	기능사 415,496	서비스 174,926

과정평가형 합계 4,280

기술사 0	기능장 0	기사 78
산업기사 1,730	기능사 2,140	서비스 332

2019년 한 해 동안 국가자격시험 취득자는 총 77만 3,704명이며, 검정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2019년 기준 누적 취득자 현황

(검정형 및 과정평가형) (단위: 명)

기술사 53,353	기능장 61,294	기사 2,034,257
산업기사 2,052,216	기능사 12,103,461	서비스 13,683,858



2019년 기준 1인당 취득 현황 (단위: 명)

1~5개 10,508,730	6~10개 143,787	11~20개 9,290
21~30개 192	31개 이상 27	



2019년 기준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수는 모두 1,066만 2,026명이다. 1~5개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다. 27명이 국가기술자격 31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2019년 연령별 취득자 현황

(검정형 및 과정평가형) (단위: 명)

10대 141,372	20대 335,321	30대 108,785
40대 101,208	50대 67,948	60대 이상 19,070



2019년을 기준으로 연령별 취득자를 살펴보면 20대가 33만 5,321명으로 가장 많고, 10대가 14만 1,372명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일학습병행,
4차산업혁명 시대의 마중물이다

㈜만안자동차정비서비스



심 상 준 (엔진부 팀장)

14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 이 길을 쭉 걸어왔는데 일학습병행에 참여했던 이유는 자동차 공부에는 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학습병행 전에는 정비를 할 때 두려움이 많았는데 이후에는 정비의 퀄리티를 생각할 정도로 자신감을 갖게 됐죠. 학생에서 현장교사로 자리를 옮긴 지금, 배울 때보다 가르칠 때 공부가 더 많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조 준 장 (차제수리부 사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도제학생을 시작했고 지금은 대학교 자동차과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처음에는 취직도 했는데 굳이 공부를 해야 하나 싶었는데 현장에 있다 보니 이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일학습병행을 통해 2019년 경기도기능경기대회 금메달, 전국기능경기대회 동메달을 획득했고 힘들지만 성장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큰 성취감을 느낍니다.

글. 이경희 / **사진**. 이성원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만안자동차정비서비스가 '2020년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로 선정됐다. 숙련기술인 우대 및 숙련기술장려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수여 되는 이 상은 미래를 담보할 기술인 양성을 위해 노력해온 기업들에는 더없이 큰 영예이자 여타기업에 타산지석이 되는 성과이다. 역량 높은 기술인의 배출소로 성큼성큼 성장하고 있는 ㈜만안자동차정비서비스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강 동 훈 (관리부 부사장)

12년차 근무자입니다. HRD 담당자로 5년 일을 했고 현재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도제학교와 일학습병행, 둘 다 실시했기 때문에 학생이 매우 많았는데 이는 사내 분위기를 많이 바꾸었습니다.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니 일반직원들의 학습량까지 함께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이는 일학습병행 사업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 중 (도장부 반장)

자동차 도장부에서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일학습병행 현장교사로서 학생들의 기술연마는 물론 취업까지 지원하며 함께 작업을 하고 있어요. 현장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제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의 역량 또한 키우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되기 때문이지요. 우수숙련기술인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지름길을 안내하는 일학습병행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오직 배움만이 살길이다

㈜만안자동차정비서비스는 1996년에 출발한 자동차 정비서비스 업체이다. 20년이 넘도록 한자리를 지켜온 만큼 안양시를 비롯 근처 도시에서도 수많은 단골고객들이 찾아올 정도로 이곳 직원들의 실력과 성실함은 자자하게 정평이 나 있다. ㈜만안자동차정비서비스가 이같이 높은 정비 수준을 갖게된 것은 강금원 대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 어떻게든 성공하겠다는 꿈을 품고 자동차 정비 업계에 들어와 평생을 배우고 익히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온 강금원 대표는 오직 배움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온 인물이다.

"자동차 정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굉장히 뿌리 깊습니다. 험한 일이라는 인식도 크고, 정비사에 대한 믿음도 부족했지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지요. 직원들 또한 스스로 자부심을 갖기 힘들었고 돈 몇십만 원 더 준다고 하면 가타부타 말도 없이 옮기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강금원 대표는 일단 직원이 들어오면 장시간 면담을 했다. 그리고 남자 정비사뿐만 아니라 여자 직원들도 공부를 하도록 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안자동차정비서비스의 일학습병행은 매우 중요한, 비중이 굉장히 큰 프로그램이었다.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 내에서 적성에 맞는 부서를 찾아주고 여기에 학습을 통해서 전문성을 부여해주면서 탄탄한 실력을 갖춘 기술인의 삶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전무, 상무 등 중간관리자 없이, 엔진부 1팀장, 2팀장, 검사팀장, 판금팀장, 도장팀장 등 딱 실무부서에만 팀장제도를 둔 채 교육과 관리를 책임지게 한 것도 일학습병행의 효과적인 운영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다.

일학습병행으로 얻은 성과들

일학습병행은 독일 및 스위스식 도제훈련제도를 한국의 현실에 맞게 설계·도입한 제도다. 강금원 대표는 한국에서 일학습병행이 막 태동하던 그즈음 현장에 함께 한 이력을 갖고 있다. 독일 상공회의소에서 '일학습병행'을 컨설팅 해준 시기에 강 대표도 전문기술인으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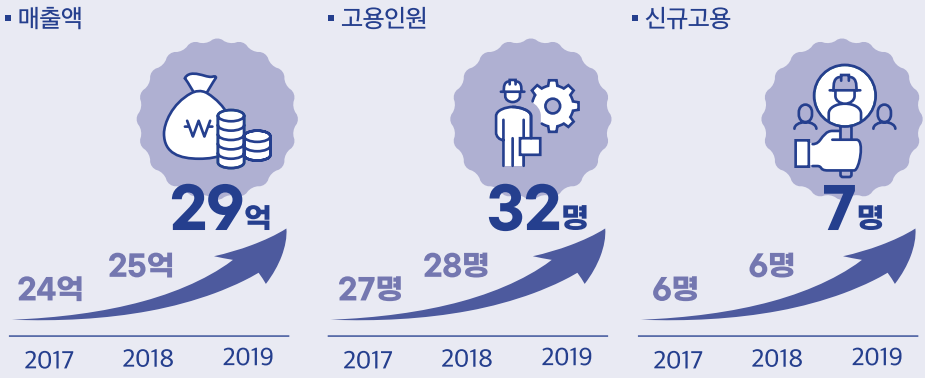
같이 참여해 이야기를 들었고 한국의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 독일 상공회의소 사람들이 직접 ㈜만안자동차정비서비스의 정비소를 참관하기도 한 것이다. ㈜만안자동차정비서비스는 일학습병행 단독기업, 도제학교 시범기업, P-Tech 실시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자체 사내훈련을 꾸준히 실시했고 직원들의 기능경기대회 참가를 독려하면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왔다. 이곳 출신이라면 면접도 볼 필요 없다는 말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 같은 학습 분위기는 회사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얻은 숙련기술은 기능경기대회의 장비 및 차량 기부, 몽골 자동차 정비교육 자재 기부, 심사위원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로 환원했으니 일학습병행의 영향력은 사내를 넘어 사회로 뻗어 나가는 중이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기술에 맞서 일학습병행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만안자동차정비서비스. 이들의 쉼 없는 도전과 열정은 우리가 세계 최고 자동차 기술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을 만들 것이다.

COMPANY INFORMATION

회사명	㈜만안자동차정비서비스	**업태 및 종목**	자동차 정비, 자동차 검사
대표이사	강금원	**자본금**	5천만 원
임직원 수	32명(2020년)	**설립일**	1996년 8월 16일
주요 제품	자동차수리, 자동차검사, 부품판매, 세차업, 전문정비업		

일학습병행 성과



훈련직무 자동차 정비

교육훈련시간 2017년 857시간, 2018년 925시간, 2019년 1,190시간

학습효과 학습근로자의 기술 숙련도 향상, 기업 현장교사의 역량제고, 자격증 취득

25살에 자동차 정비를 배우기 시작한 저는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애썼습니다. 저처럼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고 환경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열정과 성실함만 있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음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현장경험과 이론까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일학습병행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회사의 수많은 직원들은 대학졸업장을 받았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더 큰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자동차정비업계가 전문분야로 인정받고 숙련기술인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만안자동차정비서비스 대표이사 강 금 원

MASTER HAND



KOREA

나는 언제나

현장(現場)의 명장(名匠)으로 남고 싶다

대한민국 명장
'윤슬' 최옥남 대표

무한한 열정과 성실, 나눔의 자세로 보석세공 분야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해온 최옥남 대표를 만나보았다.

글. 이경희 / **사진**. 이성원

손재주가 남다르던 소년, 귀금속 세공에 발을 딛다

최옥남 대표가 2020년 명장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 그의 핸드폰은 정신없이 울리기 시작했다. 사방에서 쏟아진 축하 전화와 문자 세례 덕분이었다. 그리고 한 통의 편지도 도착했다.

"'행여 나한테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말아라. 큰 상을 받았으니 자만하지 말고, 더 노력하고 머리를 숙여라'라는 내용의 편지였어요. 제가 17살에 처음 모셨던 스승님께서 보내오신 거였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보는 최옥남 명장의 삶의 궤적이 편지 한 통으로 드러나는 순간이다.

최 명장의 기억을 더듬어보면 가장 먼저 공구를 든 아버지가 나타난다. 바닷가 동네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던 그에게 어선과 집을 짓는 목수로 살았던 아버지는 지금의 최옥남 대표에게 그대로 투영되는 모습이기도 했다. 중학교 시절 내내 미술반 특별활동으로 뛰어난 재주를 보였던 그는 중학교를 마치자마자 광주시에 위치한 세공 공방에 들어갔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엄격한 스승 밑에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다니며 학업을 이어 나갔지만, 도제식으로 이루어진 세공법을 익히는 길은 만만치 않았다. 공방의 막내로 삼시 세끼 밥을 했고 선배들의 빨래와 청소를 도맡았다. 한겨울 얼음물로 골목길에 앉아 빨래며 설거지를 하면서 맞은편 세탁소집 아이들이 교복을 입은 채 등교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기도 했다.



최옥남 명장이 서울에 상경한 건 1989년의 일이었다. 더 정교한 세공기법을 배우고 더 큰 길에서 걸어보고 싶다는 욕심 때문이었다. 뛰어난 세공기술에 성실성까지 갖췄던 그는 공방 사장들에게 큰 신임을 받았다. 그리고 그러한 신임은 그의 빠른 독립을 가능하게 했다.

"제가 모셨던 공방 사장님의 부재로 오갈 데가 없어진 제게 거래처 대표님들이 '우리가 거래를 계속할 테니 물건을 만들어달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가진 것 없는 제게 다이아몬드, 금덩어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엄청난 신뢰를 보여주신 거죠."

최옥남 명장의 입가에 우물 같은 미소가 깊게 밴다.

JEWELRY

약력

2004 한국귀금속공예기술 경기대회 금상
2006 귀금속가공 기능장
2008 전국기능경기대회 귀금속공예 은메달
2010 (재)한국귀금속보석기술협회 남대문지부장(현)
2014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관련 전문위원(현)
2014~2018 전국기능경기대회 귀금속 공예직종 심사장
2018 제44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 심사장 및 부지도위원

스스로 찾은 동기부여의 길

최 명장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면 일정한 주기로 한 단계씩 뛰어오르는 순간이 찾아왔었다고 회고했다. 광주를 떠나 서울로 올라왔었던 것, 나태해진다 싶을 때 공방을 옮겼던 것, 생각지도 못했던 공예대회의 참가 등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다.

"사실 예전에는 제도권 안에 있어야 할 필요성을 잘 못 느꼈어요. 혼자서 일해도 고객들이 꾸준히 찾아주셨으니까요. 그러다가 IMF가 터졌을 때 중간상인이 제게 큰 손해를 입히고 잠적해버린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거래처 대표님이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도움을 받은 뒤부터는 남대문지부에 가입하고 사업자도 정식으로 내면서 제도권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공예대회 참가도 지부에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2004년도 한국귀금속공예기술경기대회에 처음으로 출전해 금상을 거머쥔 그는 이후 기능장을 따고 전국기능대회 등 다양한 대회에 출전하면서 스스로 실력을 꾸준히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대회 참가는 기능인들에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기에 성과가 더해지면 훌쩍 성장하는 느낌이 들죠. 현장에서 일하는 자세도 달라지고요. 저는 후배들에게 대회에 나갈 것을 많이 권유합니다. 제가 전국대회에 나가 수상을 하고 심사를 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한 이후 대회에 출전하는 남대문지부 세공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굵직한 상들도 많이 휩쓸었지요. 저로서는 굉장히 보람찬 부분이었습니다."

최 명장의 이러한 활동은 자연스럽게 귀금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다. 서울주얼리공예협동조합을 만들어 첨단 세공장비를 마련하고 함께 사용법을 익히면서 공유해 쓰도록 한 것이다. 이는 귀금속 세공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조합원들이 하나가 되는 초석 역할을 톡톡히 했다.

CRAFT





EFFORTS

경지도, 최고도 없는 노력의 산물

보석을 다루는 데는 뛰어난 세공기술이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탁월한 심미안이 필요하고 뛰어난 디자인 실력이 필요하다. 시대의 흐름을 읽는 눈 또한 갖춰야 했다. 그래서일까? 최옥남 명장의 작품은 단순히 보석을 뛰어넘는 가치를 선사한다. 강강수월래를 모티브로 한 <강의 축제>, 햇빛이나 달빛에 비쳐 반짝이는 잔물결을 의미하는 순우리말 윤슬을 제목으로 붙인 <윤슬>, 자유롭게 바람을 타고 나는 <나비의 꿈>까지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작품들은 어린 시절 바닷가에서 자랐던 소년의 꿈을 비추고, 동네 뒷산에 올라 만끽한 숲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복원해내면서 무한한 감동을 선물했다.

"보석을 만지는 일은 경지도, 최고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꾸준히 노력하고 채워 성장형 곡선을 끊임없이 그려야 해요. 세공업의 환경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걸 채우는 게 우리의 몫이고 언제까지 열악하다는 핑계 뒤에 숨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옥남 명장은 귀금속 세공인으로 살아오면서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고 했다. 그러나 이야기의 뒷면을 들춰보면 상대를 좋은 사람으로 만든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최 명장 본인이었다. 모든 것에 감사하고 겸손하며 자신을 낮춤으로써 끊임없이 더 나은 장인이 되고자 노력해온, 신작로(新作路)에 우뚝 선 바로 그 말이다.

"앞으로의 꿈이요? 취약계층, 소외계층, 장애인 등을 위해 제가 가진 능력을 보태고 싶습니다. 후진 양성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요. 저는 모두가 같이, 다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고객의 가장 빛나는 순간, 가장 빛나는 추억을 위해 노력해온 그의 손끝은 지금 이 순간도 금의 품위와 다이아몬드의 우아함에 걸맞은 작품을 빚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명장으로서 부담에 짓눌리는 것이 아닌, 사명으로 훨훨 날고자 하는 최옥남 명장의 남은 날들이 더욱 기대되는 시간이다.

JEWELRY CRAFT



루페
내포물을 확인할 때 쓰이는 확대경



게이지
다이아몬드 사이즈를 잴 때 필요한 도구



집게
사용하기 좋게 갈아서 맞춤형으로 사용



소도리
작은 사이즈 보석을 세팅할 때 사용



에메랄드빛 희망

용접면을 쓴 채 흑 유리를
통해 보면 밝은
에메랄드빛으로 보인다

Story. 1 사회복지사, 내겐 맞지 않는 옷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취업이라는 글자가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나는 기관에 어필할 만한 대외활동도 없었고 학점이 특출하게 좋은 편도 아니었기에 취업 강사와의 1:1 면담에서 자꾸 어깨가 좁아졌다. 내 태도가 애매하다고 생각했는지 강사는 취업할 생각은 정말 있는 거냐고 재차 물었지만, 쉽사리 대답이 나오질 않았다. 나는 사회복지학과 학생이었다. 매년 캠퍼스에는 졸업한 선배들의 공무원직 합격 플래카드가 걸렸다. 하지만 나는 졸업에 필수인 두 번의 기관 실습을 마치고 나니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내게 맞지 않는 옷임을 깨닫고 말았다. 당시 나의 나이는 25세였고,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기에 결코 늦은 나이는 아니라는 생각에 나는 과감히 사회복지사의 길을 뒤로 하기로 했다.

Story. 2 뜻밖의 권유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니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에 공감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대부분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아깝지 않으냐는 반응이었다. 한 친구가 내 고민에 대해 진지하게 들으며 자신의 취업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었다. 친구는 내게도 용접사 일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며 권했다. "내가 평소 여자치고는 거친 면이 있지만, 무리가 있지"하고는 돈은 많이 벌겠다 하니 친구가 용접사의 평균 일당을 알려주었다. 개인 역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본 일당이 꽤 높은 편이었다. 친구는 꼭 건축현장이 아니어도 철강, 제조업 공장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용접기술이 두루 쓰인다고 덧붙이며 국비 지원과정도 알아보면 코스가 다양하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자신도 본격적으로 특수용접 기능사 자격증을 딸 계획이라고 했다.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나의 마음에 어느샌가 '용접사'라는 단어가 꽉 채우고 있었다. 그날부로 나는 용접사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다. 용접사가 되는 법이나, 용접사가 취업할 수 있는 분야나 전망 등에 대해 다각도로 조사했다.

글. 박혜란(홀리핸즈)

Story. 3 용접사 무료지원 교육과 한 달간의 실습

친구는 특수용접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폴리텍대학교의 특수용접과에 대해서도 알려주었다. 동아줄을 잡은 것처럼 폴리텍대학교 특수용접과에 지원서를 냈고, 합격하여 1년 동안 용접 이론과 실습수업을 수료했다. 전체 인원 60여 명 중 5명만이 여성이었다(이것도 보통 때는 2, 3명에 그친다고 했다). 처음엔 용접 스패터가 튀고 왱 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그라인더에 지레 겁을 먹기도 했으나 차근차근 따라하니 아주 어려운 점은 없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척척 가스절단을 해내고, 용접기에 달린 아르곤가스통을 능숙하게 교체하게 되었다. 그렇게 1학기가 끝나고 짧은 여름 방학 때 나는 교수님의 소개로 기업체에 나가 한 달 동안 실습했다. 그곳은 압력용기, 열교환기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특수용접으로 분류되는 아르곤용접 및 로봇 플라즈마 아크용접까지 두루 쓰이는 곳이었다. 용접 팀장님은 실습생인 나에게 조언과 기술 전수를 아끼지 않으셨고, 한 달의 짧은 실습이 끝났을 때 나는 적성에 맞지 않아 방황하던 대학교 4학년 때의 모습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Story. 4 졸업 후 취업

그곳에서 만난 나의 남편은 지금도 종종 그때 이야기를 한다. 열심히 눈을 빛내며 수업을 듣던 내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 자신에게도 많은 자극이 되었다고. 나는 그렇게 특수용접과의 1년을 누구보다 값지게 보내며 특수용접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지금도 종종 힘들 땐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게 허락되지 않은 일은 없다고 생각하며 힘을 얻곤 한다. 나는 특수용접학과 교육 이수 중 여름방학에 실습했던 기업과 인연이 되어 졸업 후 그 기업에 입사하게 되었다. 비록 지금은 이직했지만, 마지막엔 직접 로봇용접기를 조종하여 가장 핵심이라 부를만한 열교환기 탱크 몸체의 용접을 하기도 했다. 남편 역시 특수용접기능사 및 용접기능사 자격증을 획득하여 취업에 성공했고, 그때 만났던 친구들은 우리에게 '부부 용접단' 이라는 귀여운 별명을 붙여주었다.

Story. 5 내가 본 에메랄드빛 희망

용접을 할 때 쓰는 용접 면에는 흑유리가 끼어 있다. 용접할 때 발생하는 밝은 빛을 포함한 대부분의 가시광선을 차단해주는 물질로, 용접부위를 제대로 관찰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다. 금속을 녹이기 위해 가하는 아크의 온도는 순간적으로 3,000℃까지 올라간다. 거의 태양의 흑점에 가까운 온도다. 그 부분을 용접면을 쓴 채 흑 유리를 통해 보면 밝은 에메랄드빛으로 보인다. 결함이 없는 용접을 하려면 그 부분을 잘 보며 용융 풀(용접할 때, 아크열과 용적 따위로 인해 움푹 파이는 곳)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매일 그 아름다운 에메랄드빛을 보며 종종 나는 태양에 가까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때 어떻게든 전공을 살려 취업해서 사회복지사로서 현장에 나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어떻게든 즐겁게 일을 하려 하겠지만 계속되는 스트레스에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맞닥뜨리는 고충을 내게 토로할 때면 나는 그들에게 묻곤 한다. "너도 특수용접기능사 한 번 따 볼래?" 이 한 마디가 예전 방황하던 나에게 동아줄처럼 내려왔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이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에메랄드빛 희망이 될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공정성’이라는 지표 위에 ‘정성’을 채우는 이들

사회가치성과부 비전 압화 드로잉 도전

늘 ‘객관성과 공정성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부서. 내외부 성과평가를 담당하며 정확한 지표와 수치만을 허락하는 이들에게 오늘은 조금 다른 미션이 주어졌다. 엽서에 그려진 그림에 압화를 수놓는 일! 특유의 꼼꼼함으로 한 땀 한 땀 미션을 수놓은 이들. 사회가치성과부 6인의 한 해를 들여다봤다.

야무진 손끝으로 탄생한 비전, 떠오르는 일출처럼, 인디언처럼, 꽃길만 걷기를!

임승묵 부장의 팀원 소개로 ‘비전 압화 드로잉’ 미션이 시작됐다. 리더의 목소리로 듣는 사회가치성과부 팀원 한 명 한 명의 역할과 노고는 사회가치성과부의 한 해를 가득 채우기 충분했다. 부서 특성상 정확한 지표와 수치만을 허락하는 이들에게 오늘의 미션은 다소 생소했지만, 핀셋으로 압화를 집는 꼼꼼함과 특유의 몰입감, 작품 완성도를 보아하니 오히려 제격인 듯싶다. 인디언, 달리는 말의 날개, 드레스를 입은 여성. 이렇듯 팀원들에게 주어진 도안은 총 3가지 종류로, 도안을 쓰거나 새로운 스케치를 활용해도 좋다는 전제하에 압화 드로잉을 시작했다. ‘인디언’을 선택한 임승묵 부장은 “인디언을 주니, 생각이 한정되는 것 같아.” 하며 골똘히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한 땀 한 땀 인디언의 머리칼을 채우기 시작했다. 같은 그림을 고른 김민서 과장은 다양한 컬러의 압화를 활용하여 임승묵 부장보다 한 수 위인 컬러 감각을 보여줬

글. 김민정 / **사진**. 김주찬



People

(왼쪽부터) 박정우 과장, 이희성 차장, 이준헌 차장, 임승묵 부장, 김민서 과장, 엄성경 과장

다. 동시에 '달리는 말의 날개'를 고른 이희성 차장과 엄성경 과장의 작품도 인상적이었다. 이희성 차장은 말이 달리는 길에 꽃을 뿌려 말에 힘을 북돋웠고, 엄성경 과장은 날개에 압화를 붙여 풍성한 날갯짓으로 힘을 보탰다.
한편, 가장 정교한 손끝 솜씨를 보여준 건 박정우 과장이었다. 그의 손에서 곱디고운 드레스가 완성됐다. 이는 박정우 과장의 올해 목표와도 닮아 있어 팀원들은 환호와 함께 박수를 보냈다. 이어서 이준헌 차장의 '떠오르는 일출'은 창의성 면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도안이 아닌 자신의 스케치로, 새해를 기다리는 시점에 너무나도 꼭 맞는 메시지로 팀원들에게 감동을 전했다.
오늘 이들은 한정된 자원에서도 저마다 성과와 가치를 찾고, 이를 표현해냈다. 객관적인 평가가 아닌 서로에게 전하는 정성 들인 메시지가 더욱더 진했던 시간. 어깨의 짐을 털어내고, 다시 날갯짓으로 힘차게 달리자던 말처럼, 올해 공단의 시간은 떠오르는 일출처럼 더욱 밝을 것이다.

비전 압화 드로잉을 통한 HRD

힐링
몰입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다짐
한 해를 되돌아보고, 내년도를 계획할 수 있다.

강화
비전 설정을 통해 HRD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비전 압화 카드 만들기 및 활용법

다양한 컬러의 압화와 핀셋, 도안이 그려진 엽서를 준비해주세요. ▶ 도안 혹은 나만의 스케치를 완성해주세요. ▶ 하나씩 압화를 올려 그림을 완성해주세요. ▶ 나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 혹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적어주세요. ▶ 나의 비전을 팀원들과 공유해주세요!

나의 비전이 담긴 압화 카드와 함께 사회가치성과부 팀원들에게 한 마디!

날아오르는 새처럼!

이 시간에 모두 기를 팍팍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에는 내외부 평가에서 더욱더 우수한 성적을 거둬 우리 공단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임 승 묵 부장

가벼이 날자!

우리 모두 어깨의 짐을 털어내고 2021년도 가벼운 마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봄에 저희 가정에 아기가 태어날 예정입니다.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희 성 차장

떠오르는 일출처럼!

직접 일출을 표현해봤습니다(웃음). 팀원 모두 이 새해를 보며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준 헌 차장

꽃길만 걷자!

우리 모두 꽃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이 기분 좋은 드레스처럼 2021년 행복한 소식이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박 정 우 과장

날개를 펴자!

돌이켜보면 좋았지만, 모두 힘들었던 시간이 더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이 풍성한 날개처럼, 올해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엄 성 경 과장

배움의 기회!

애써 노력했지만 보이는 것은 많지 않아 힘들었던 한 해였어요. 모두 힘냈으면 하고 개인적으로는 이 그림 속 문구처럼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김 민 서 과장



사회가치성과부 임승묵 부장 인터뷰

사회가치성과부를 소개합니다!

Q. 공단 내 사회가치성과부 업무에 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사회가치성과부는 기획조정실 소속으로 정부경영평가, 조직성과평가, 개인성과평가, 기타 동반성장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정부경영평가는 한 해 성과를 외부 기관인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하여 경영 및 사업실적에 관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한 해의 사업성과를 담기 위해 각 사업부서와 사회가치성과부에서 지표별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보고서를 3월 즈음 제출하고 4월 현장실사 등의 평가를 받은 후 6월에 결과가 나오는 사이클로 움직입니다. 조직성과평가 및 개인성과평가는 연속해서 반기별, 연단위별로 이루어집니다. 내부성과평가편람을 3월까지 확정하여 각 부서에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알려주고, 위임 평가 부서들에 성과 보고를 받은 후 최종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Q. 사회가치성과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모든 평가는 조직 전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개선해서 성과를 끌어 올릴지를 늘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경영평가의 경우,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워서 내부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국민과 부처 등에 공단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내부성과평가는 조직 내 기관, 부서, 그리고 개인까지 모두 대상입니다. 내부성과평가를 하다 보면 공정성, 적정성을 토대로 한다고 하지만,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정성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이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 2020년 사회가치성과부를 돌아보자면 어떤 한 해였나요?

A. 우리 공단의 정부성과평가를 되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을 위해 고민한 시간이었습니다. 사회가치성과부는 내부의 성과를 관리하고, 이러한 우리 조직 및 구성원들의 성과를 정부 부처나 평가단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2021년에는 지난해보다 정부경영평가와 같은 대외평가에서 더욱더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우리 공단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힘쓸 계획입니다.

알록달록 달콤한 디저트,
언택트 시장의 문을 열다



공단 상생협력관 참여기업
달달홀릭 손지혜 대표

지난 2019년, 울산 신정평화시장 내 청년몰에 입점해 다양한 맛의 프레첼과 달고나, 솜사탕 등의 디저트를 선보이고 있는 달달홀릭. 가게를 열고 막 시작된 팬데믹으로 인해 첫걸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지만, 발 빠른 대처로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했다. 비결은 바로 온라인 시장 진출과 시장 특성을 고려한 색다른 메뉴개발. 밀려드는 디저트 주문으로 바쁘지만 달콤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달달홀릭을 방문했다.



글. 김혜민 / **사진.** 김주찬



어떻게 디지트 가게를 창업하게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결혼 전까진 패션 디자이너로 활동했어요. 그러다 결혼을 하면서 울산으로 오게 됐고요. 한동안은 아이들 양육에 집중했는데, 다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쯤 창업을 준비한 것 같아요. 전공을 살려볼까 고민했던 적도 있는데, 울산의 지역 인프라에는 맞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 과감히 방향을 틀었죠.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떠올려보다 고른 것이 디저트였어요. 디자이너로서 제 감각도 녹일 수 있을 것 같았고요.

프레첼이나 솜사탕, 달고나 과자는 보통 디저트 가게에서 만날 수 있는 제품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달달홀릭의 주력메뉴로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초기에는 케이크, 마카롱, 푸딩 같은 메뉴도 판매했어요. 그런데 달달홀릭이 오픈하고 두어 달쯤 지난 시점에 코로나19가 터졌어요. 매장을 찾는 손님이 많지 않으니, 자연히 버려지는 디저트도 늘고…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었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판매 준비를 했는데, 아무래도 전국 곳곳으로 택배를 보내려면 보관이 쉬워야겠더라고요. 가령 케이크는 배송 과정에서 상할 수도 있고, 모양이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온라인 판매용으론 어렵겠죠. 그런 고민을 거듭하며 판매품목에 계속 변화를 주게 됐고, 지금의 메뉴 구성으로 바뀌게 됐네요.

변화는 두려움을 수반하기도 해요. 대표님은 혹시나 하는 걱정은 없으셨나요?

'과연 온라인에서 잘 팔릴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기존의 방법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니 일단 해보자고 생각했죠. 3월부터 온라인 판매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어요. 통신판매법을 살피고 각종 서류를 챙기고. 물론 온라인 판매에 적합한 메뉴에 대한 고민도 꾸준히 했어요. 무얼 팔아야 꾸준한 매출을 기대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완성된 제품이 달고나와 프레첼이에요. 달고나는 요즘 카페에서도 커피 위에 올려서 따로 메뉴로 내놓을 정도로 인기잖아요. 달달홀릭에선 개별상품으로 판매하니까 더욱 상품성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많은 시도를 했어요. 달고나 안에 벌집모양의 공기층을 넣어서 부풀려가며 두껍게 만들고, 또 벌집모양을 만든 김에 실제로 꿀도 넣어보고요. 그러면서 맛도 업그레이드됐어요. 당시 제가 입점했던 온라인 매장에선





달달홀릭이 달고나 판매 선두주자였는데, 지금은 다른 분들도 많이 판매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엔 프레첼이 가장 인기라고 들었어요. 매장 옆에 쌓인 택배 박스만 봐도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알 것 같아요.

꾸준히 판매될만한 상품을 구상하다가 녹인 초콜릿에 프레첼을 담가봤어요. 지금처럼 인기를 얻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는 일손이 부족해서 들어오는 주문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예요. 수제로 만들어지니까 밤을 새우더라도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초반엔 다크초콜릿 맛과 다크초콜릿에 코코넛을 묻힌 맛 두 가지만 팔았는데, 지금은 가짓수가 늘어서 총 여섯 가지(인절미, 말차, 황치즈, 얼그레이)가 됐어요. 작지만 자체공장을 따로 두고 직원 수도 늘리면서 겨우 가능해진 부분이죠.

메뉴개발에 얽힌 특별한 에피소드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요.

방송국에서 촬영을 오신 적이 있어요. 그때 달달홀릭의 디저트를 소개하면서 맥주 안주로도 제격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취재진 중 한 분이 맥주엔 치즈도 좋을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는데 자꾸 생각이 나서 어떻게 적용해볼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제품도 써보고, 배합비율도 달리 적용해보고. 결국 레시피 개발에 성공해서 황치즈 프레첼을 내놓게 됐죠.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니, 그분께 참 감사해요. 이 일을 계기로 고객이 스치듯 하는 말도 놓치지 않고 고민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됐고요.

최근에는 연말맞이 행사로 백화점에서 제품을 판매하셨죠?

피넛버터가 들어간 새로운 프레첼 메뉴를 개발하면서 와디즈라는 사이트에서 펀딩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백화점 이벤트 협력업체에서 이걸 보시곤 팝업스토어 제안을 하신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기회였는데 덕분에 크리스마스 전후 1주일간 백화점에서 홍보할 기회가 생겨 좋았죠. 열심히 하면 좋은 기회는 늘 따라오는 것 같아요. 최근 저희 제품이 유튜브 온라인 라이브방송에서도 소개됐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와 한 쇼핑몰에서 소상공인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때 운 좋게도 저희 제품이 크리스마스 특별 아이템으로 선정돼 소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주문을 주셨어요. 저희 제품이 웬만한 사이트에 다 입점은 되어있지만 사실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고객들에게 노출이 되어야 판매가 될 텐데 그러려면 광고비를 많이 써야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판매가 잘 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중들에게 노출될 기회가 많아지면 참 감사하죠.

QR코드를 인식해
상생협력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청년몰 입점을 준비하시는 동안 창업 전문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무사히 통과한 덕에 달달홀릭을 오픈하셨고요. 교육내용 중 크게 도움을 받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청년몰에 입점하면 2년간 무상임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입점 전까지 여러 가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시험도 쳐야 해요. 청년몰 입점 상인 모두 약 1년간 그런 시간을 거쳐 자리 잡았어요. 저는 컨설팅 교육에서 특히 큰 도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품의 질, 가격, 개선점 등 소비자가 바라는 건 명확한데, 판매자가 직접 그 기준을 맞추기는 쉽지 않거든요. 원가계산도 하게 되고, 월세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땅히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가격이 생겨요. 그런데 소비자는 과연 그 가격을 합당하다고 생각할까요? 판매자들도 이 문제를 알지만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역시 컨설팅 교육을 계기로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배웠고요. 원가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제품가격의 몇 퍼센트가 인건비로 계산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수업들이어서 정말 좋았어요.

올해 달달홀릭의 계획에 대해 들려주세요.

주문 양을 다 감당하려면 OEM 공장과 계약을 맺고 생산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컨설턴트도 그런 조언을 주셨고요. 그렇게 되면 홈쇼핑처럼 대량생산이 가능해야 판매 가능한 유통처로 진출이 가능해질 거예요. 이미 냉동창고도 빌려놓은 상태에요. 혹시 잘 못되면 어쩌나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가게를 운영한 지 이제 막 1년이 지난 것치곤 꽤 많은 것들을 이룬 것 같아요. 그동안은 무작정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는 좀 더 현명하게 계획해서 가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상생협력관에 참여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상생협력관 사업이 무엇인가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온라인홍보센터가 예산·인력 등의 이유로 제품홍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위해 마케팅·홍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생협력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업 제품 등록 (정보인프라 공유)	홍보, 마케팅 지원 (판로확산)	기업 혁신 성장 지원
기업이 직접 제품을 등록	공단 보유 홍보 채널에 홍보	제품문의 및 투자처 확보 등 혁신기업 경영성과 확대 지원

상생협력관을 이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공단 정보 플랫폼 공유/개방
-기업관계자가 직접 해당기업 정보를 등록관리
-빠르고 정확한 신제품 기업정보 반영가능

홍보효과 UP!



글. 정소야 / **사진제공**. 인제군청

비밀스럽게 행복하게

2021년이 밝았다.
저마다 새해의 기대가
담긴 상자를 받아든 오늘.

비밀스러운 상자 속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기쁨, 소망, 시련, 다시 행복….

올해 겪어낼 일들을
미리 고를 수는 없겠지만,
꿈꿀 수 있는 자유는 우리에게 있다.

더 나아지리라는 기대,
아름다운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소망.

비밀스럽게
행복한 기대로 부푼 1월이다.

강원도 인제군 '비밀의 정원'

'비밀의 정원'은 서리가 내려도, 눈이 내려도, 안개가 감싸도 모든 장면이 아름답다. 원래는 군사 작전지역이라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었는데, 신비로운 풍경에 몰래 촬영하는 이들이 늘면서 지금은 도로변에서 촬영할 수 있게 허가되었다. 그래서 이름도 숨겨진 요새인 '비밀의 정원'. 안개에 가려진 모습이 너무도 신비로워 '비밀의 정원'이 되었을 것이라는 짐작도 있다.

주소: 인제군 남면 갑둔리 산 121-4

UN — tact

대세는 언택트(untact),

거리두기의 여백을 채우다

팬데믹을 극복하는 비대면 경제

코로나19 종식이 요원하게만 느껴지는 오늘날, '사회적 거리두기'는 필수 지침이 되었다.
즉 사람과의 만남을 최소화하면서도 삶을 영위해야 하는 상황에 도래한 것. 이에
국가와 기업은 너 나 할 것 없이 언택트(untact) 비즈니스에 주목하고 있다. 언택트란
'콘택트(contact)'에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언(un-)'을 합성한 말로,
인공지능·키오스크·VR 등을 활용한 비대면 소비 형태를 의미한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할 지금, 이 언택트 시대에 걸맞은 새 지식으로 무장할 때다.



글. 박소현 / **참고도서.** 언택트 시대 생존 방법, 언택트 이코노미 2021



집 밖은 위험해! 홈코노미 전성시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일상도 많이 바뀌었다. 집 밖을 나설 때 마스크는 필수가 됐고, 사람 간의 만남을 자제하거나 최소화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업무, 학업, 심지어 취미활동의 영역까지 집 밖에서 안으로 옮겨졌다. 단순히 '휴식 장소'였던 집이 사무공간이자 문화시설, 교육 현장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 '팡(FAANG : Facebook, Apple, Amazon, Netflix, Google)'이라는 IT 대기업들이 미국 주식 시장을 좌우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쇼핑몰에 가는 대신 집에서 구매하고, 외식 대신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새벽 배송으로 신선 식품을 받아본다.

영화관이 아닌 OTT(Over The Top) 서비스로 시청하며, 직접 만나기보다 SNS나 화상회의 소프트웨어로 지인과 소통한다. 이처럼 홈코노미와 언택트 열풍은 개인의 일상은 물론 기업의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은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해 기존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솔루션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전통적인 운영 방식과 서비스를 혁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는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 이는 2014년부터 시행된 모바일 기반 원격주문 서비스로, 가장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사티아 나델라(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최근 컨퍼런스에서 "2년 걸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지난 2개월 만에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라는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사무, 제조, 교육, 의료 등 각 영역에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변화를 가속했다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의 미래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업과 개인 모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불가항력의 시류로 받아들여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삼고 전화위복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Untact Business 관련 직업과 자격증 돋보기



일상을 터치(touch)로 전환하다 모바일 앱 개발자

프로그래밍, 서버,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의 기술을 기반으로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프로그래머다. 단순히 프로그래밍 업무뿐만 아니라 앱 기획·디자인·관리 및 오류 수정 등을 총괄하기도 한다. 기업체 전산실, 쇼핑몰, 금융기관, 앱 개발 전문 업체에서 일하거나 1인 개발자가 될 수도 있다.

관련자격

정보처리기사 : 주로 컴퓨터를 이용한 프로그램의 운용 및 개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반되는 전문지식을 시험하는 자격



구독과 좋아요! 나라는 브랜드를 만들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기획하고 촬영, 편집해 업로드하는 크리에이터다.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오디오로 녹음하여 방송을 제공하는 팟캐스터 등이 있다. 대부분의 제작자는 플랫폼(유튜브 등)에 개인 채널을 운영하지만 일부는 미디어 콘텐츠 회사에 소속되어 활동하기도 한다.

관련자격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영상, 음향, 디자인 등 사람의 시각과 청각으로 느낄 수 있는 멀티미디어들을 편집하고 제작하는 자격



외로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라 심리전문가

인지, 행동, 정서 및 성격 등 심리적 장애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이 아닌 상담을 통해 증상을 치료하는 전문가다. 정신분석, 내담자중심 상담, 행동치료, 인지치료, 인지행동치료, 심리극, 학습치료, 놀이치료 등 여러 가지 치료적 접근법을 활용하여 이상심리와 정신장애를 치료한다.

관련자격

임상심리사 : 임상심리학적인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심리평가, 검사, 상담,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



언택트의 정점인 자동화 기술, 로봇공학자

각 산업 분야에서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을 설계·제조하거나 응용 분야를 다룬다. 작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로봇, 수술로봇이나 배달로봇 같은 전문 로봇, 로봇 청소기 및 교육용 로봇 등 개인 서비스 로봇을 개발한다. 로봇 제조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및 국영기업체, 연구소, 건설기업 등에서 일한다.

관련자격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 로봇 서비스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조를 설계하고 필요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하는 자격

로봇기구개발기사 : 운영 환경 및 관련 규정 검토를 기반으로 로봇 기구, 주변장치, 툴 등을 설계 및 제작하는 자격

비대면 경제를 이끄는 新운송시스템 드론 전문가

드론을 설계·제작하는 개발자와 드론 조종사를 포함한다. 고공 영상 및 사진 촬영, 기사 정보 수집, 농약 살포, 의약품 및 음식 배송 등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드론 개발 기업, 연구기관, 언론기관, 드론 교육기관 등에서 일한다.

관련자격

경량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 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용 등 전문성을 확보하여 초경량비행장치 활용 산업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

집에서 즐기는 슬기로운 쇼핑생활 인터넷 쇼핑몰 관리자

쇼핑몰 기획에서 구축, 운영, 마케팅, 컨설팅까지 전자상거래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다. 웹 관련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 마케팅 등 경영 분야가 접목된 지식이 요구된다. 주로 인터넷 쇼핑몰 업체, 정보통신 업체, 유통 업체, 서비스 업체 등에서 일한다.

관련자격

전자상거래관리사 : 인터넷쇼핑몰 판매와 관련된 경영, 기술, 마케팅 능력을 갖춘 전자상거래 분야의 최고의 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자격

확실성 시대, 객관적 지표가 필수 빅데이터 분석가

통계학적 지식과 수리학 능력으로 대량의 빅데이터를 저장, 처리, 분석하는 업무를 한다. 빅데이터 분석가는 이를 통해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나 시장경제 상황 등을 예측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금융업, IT 분야, 인공지능 분야 등에 종사한다.

관련자격

빅데이터 산업기사 :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따라 대량의 정형, 비정형 자료를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최적화 모형을 제시할 수 있는 자격



방구석에서 즐기는 **'취미생활보고서'**

DIY 키트, 온라인 클래스, 실시간 화상채팅까지…

코로나19로 시작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간 지속하면서 이제는 집에서 자기만의 시간, 이른바 '미타임(Me time)'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시간을 보내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방구석 취미생활이다. 만일 코로나19로 인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일상을 지켜나가고자 무언가 찾고 있다면, 바로 여기에 주목해보자.



ME & TIME

DIY 키트로 시작하다



처음 집에서 취미생활을 시작하려는 초보자들이 제일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DIY 취미 키트(KIT)다. 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준비물과 가이드북까지 친절하게 제공되므로 비교적 접근하기가 쉽다. 콩나물 키우기나 립밤 만들기처럼 실용적인 것부터, 조립이나 공예 등 개인의 관심과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하비인더박스

취미 배송 서비스라는 신개념 비즈니스를 개척한 업체로,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300종이 넘는 취미 키트를 판매 중이다.

온라인 클래스로 만나다



기존에 온라인 강의라 하면 칠판을 두고 판서하는 강의를 떠올리기 쉬웠다. 하지만 언택트 시대를 맞아 이동에 드는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언제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다는 점 덕분에 온라인 클래스로 취미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배울 수 있고, 수강을 신청하면 필요한 준비물까지 집으로 배송해 준다.

클래스 101

'누구나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을 모토로 내세운 이곳은 특정 분야에서 성공한 유명 전문가들이 직접 클래스를 진행하는 점이 다른 업체와 차별된다.

하비풀

체험 키트인 샘플러와 원데이 클래스, 정규 클래스를 운영하며, 60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고용해 키트 제작, 포장, 배송 등의 업무를 맡기는 사회적 기업이다.

이제는 실시간이다



코로나19로 급부상한 것이 바로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이다. 실시간으로 쌍방향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현재 여러 기관에서도 줌을 활용한 온라인 클래스를 개설하고 있으며, 기존에 대면으로 이뤄지던 취미 관련 소모임들도 진행되는 등 취미생활 영역에서 폭넓게 쓰인다. 또한, 전 세계를 연결해 준다는 점도 큰 매력이다.

에어비앤비

가상으로 여행하고 체험까지 가능한 온라인 체험 서비스로, 현지 호스트와 여러 명의 게스트가 본인의 집에서 투어에 참여하거나 무언가를 배우는 등 소통할 수 있다.

헬프링

화상 또는 음성으로 1대1 라이브 클래스를 제공한다. 더욱이 재능이 있는 누구나 헬퍼 등록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친 뒤 자신의 서비스를 등록할 수도 있다.

‘귀와 발’을 보면
당신의 건강이 보인다

하루 10분 투자하는 귀족(足) 관리법

예로부터 귀와 발에는 우리 신체의 각 기관에 상응하는 반사구가 있다고 한다. 귀와 발을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반사요법에 따르면, 귀와 발에 있는 반사구를 통해 우리 몸이 가진 문제를 진단하고, 해당 부위를 자극함으로써 자가치유 능력을 유도할 수 있다.
하루 10분, 귀와 발을 자극하는 ‘귀족(足) 관리법’으로 건강을 지켜보자.



미처 몰랐던 귀에 숨은 비밀

귀는 단순히 소리만을 듣는 기관이 아니다. 귀에는 200개가 넘는 혈 자리가 분포돼 있는데, 마치 태아가 자궁 안에 거꾸로 누워있는 형태와 닮았다. 각 부위의 색깔이나 형태의 변화, 구진, 각질, 혈관의 확장 등을 통해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다. 자신의 귀를 사진으로 찍어 확인한 뒤 안 좋은 부위를 손으로 지압해 주면 마치 그 부위에 해당하는 신체 기관을 직접 자극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 또한, 귀를 수시로 자극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면서 피로가 회복되고 몸 안의 독소가 발산된다고 한다.

발로 확인하는 우리 몸의 건강

발은 예로부터 건강의 척도로 여겨졌다. 양발을 가지런히 모으면 마치 사람이 앉아있는 듯한 형태로 우리 몸의 반사구가 있다. 발에 존재하는 수많은 반사구 가운데 1개를 자극하면 신체 세포 약 120개가 반응한다. 발을 자극하면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면역력 향상 등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이때 중요한 세 가지는 마사지의 방향과 횟수, 그리고 강도다. 방향은 발의 안쪽에서 바깥,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어야 하며, 한 혈 자리당 10회 이상, 그리고 너무 센 강도가 아닌 시원하다고 느낄 정도로만 자극하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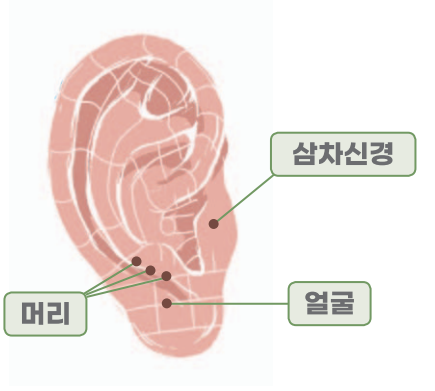
어깨 통증을 완화하는 지압점

어깨에 해당하는 부위에 압력을 주어 위, 아래로 늘이며 마사지해준다. 전반적으로 우리 몸의 통증을 완화해주는 부위를 추가로 지압한다. 지압 테이프를 해당 반사구에 붙여 두면 손으로 직접 마사지하지 않아도 지속해서 자극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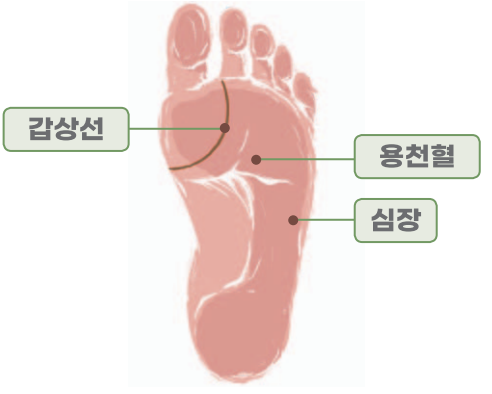
얼굴 리프팅에 도움이 되는 지압점

얼굴과 머리에 해당하는 지점에 지압 테이프를 붙이고 자극이 되도록 눌러 준다. 얼굴 부위의 감각과 씹는 운동을 담당하는 삼차신경의 반사구 또한 아플 정도의 강도로 한 번에 30초에서 1분 정도 지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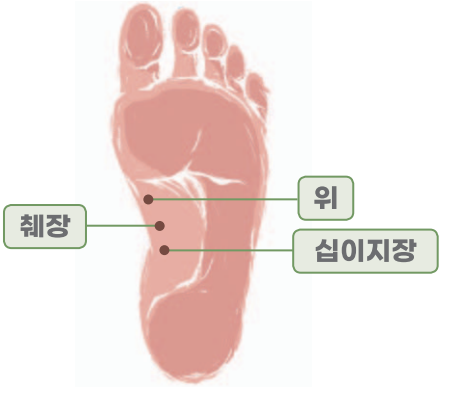
불면증을 완화하는 마사지

엄지발가락 선에 해당하는 부위는 신체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는 갑상선의 반사구로, 이곳을 아래로 쓸어내리듯이 자극해준다. 또한 발바닥 중앙에 있는 용천혈을 원을 그리듯이 지그시 누르며 지압한다.



소화에 도움이 되는 마사지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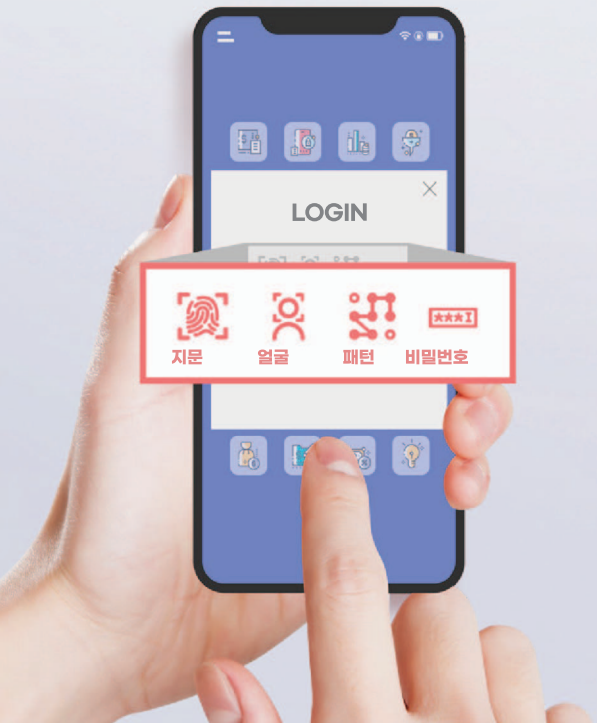
위, 췌장, 십이지장에 해당하는 지압점으로, 위에서 아래로 10회 이상 주먹으로 쓸어준다. 이때 응어리가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 크기와 단단함의 정도에 따라 소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바야흐로 '인증서 춘추전국시대'로다

공인인증서 폐지가 불러올 변화

지난해 12월 10일,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의 21년 독점시대가 막을 내리고 민간인증서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를 통해서 공인인증서 폐지가 불러올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 알아본다.



01. 공인인증서 독점시대, 막을 내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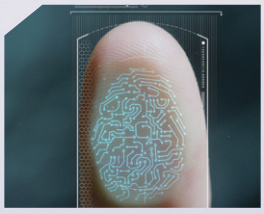
지난 1999년 제정된 전자서명법을 통해 온라인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라는 전자서명 서비스가 도입되었다. 그간 공인인증서는 온라인에서의 금융 거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특정한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까다로운 보안프로그램 설치,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1년이라는 짧은 갱신 주기 등이 불편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변화로 '공인인증서'라는 명칭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대신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바뀌고 민간 인증서들과 같은 자격으로 경쟁하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공인인증서에 주어졌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고 민간 업체에서 발급한 인증서에도 동일한 법적 효력이 부여됐다는 의미다. 물론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공동인증서로 갱신하거나 민간인증서를 발급하면 된다.





02. 민간인증서, 무엇이 다른가

새로운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 시장을 본격적인 경쟁 시장으로 변화시켰다. 그렇다면 민간인증서는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무엇이 다를까. 민간인증서의 가장 큰 장점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이 함께 내놓은 금융인증서의 경우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인증서가 클라우드에 저장돼 스마트폰에 따로 저장할 필요가 없다. 또한, 다른 민간인증서의 경우 지문·홍채·안면 등 생체 인식이나 패턴, 간편 비밀번호 등 다양한 인증 방법을 사용한다. 2년이나 3년마다 자동 갱신된다는 점도 사용자의 편의성을 더한 부분이다. 그러나 기존의 공인인증서와는 달리 인증서마다 이용 방법과 이용 범위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인증서를 미리 알아보고 잘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향후 민간인증서를 적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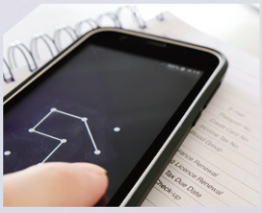




03. 제2의 국민인증서, 누가 될 것인가

민간인증서 시대를 맞아 제2의 국민인증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 인증서 시장은 약 700억 원 규모다. 그러나 추후 수수료나 타깃 광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접목시켜 사업의 모델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눈에 띄는 민간인증서로는 먼저 이동통신 3사가 공동 개발한 PASS(패스)를 들 수 있다. 출시한 지 1년 6개월 만에 누적 발급 건수가 2,000만 건을 돌파했으며, 가장 많은 사용처를 확보한 상황이다. 지난 2017년 출시한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도 빼놓을 수 없다. 전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 중이다. 이외에도 토스, 네이버, NHN페이코 등이 있다.

앞으로도 보안성, 편리성, 안전성, 신뢰성 등 각각에 중점을 둔 다양한 인증서들이 등장할 예정이며, 이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직업방송을 만나는 방법

TV SK broadband 273번, KT Olleh 252번, LG U+ 251번, skylife 189번, T브로드 210번, CJ헬로비전 230번, 딜라이브 256번

- 홈페이지·유튜브 실시간 방송시청 또는 VOD 다시보기(모바일 기기도 가능)
- 세부 시청 방법 및 지역별 채널번호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공단 직업방송매체부(052-714-8295)로 문의

코로나19와 부패

2020년은 코로나19로 시작하여 코로나19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일매일 불안 속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로감이 만연하다. 코로나19는 과연 언제쯤 종식될 수 있을까? 모든 세계인이 이런 질문을 안고 2021년 새해를 맞이했다. 올해 백신을 통해 집단면역이 이루어지고 모두가 코로나19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본다.



유사점이 많은 코로나19와 부패



필자는 코로나19의 창궐을 바라보면서 문득 부패와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았다. 놀랍게도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먼저 코로나19와 부패의 근본 원인은 인간의 '탐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존재한다. 인간의 탐욕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 결과 인수공통의 감염병인 코로나19를 불러왔다. 부정청탁이나 뇌물, 향응접대, 채용 비리 등과 같은 부패행위 역시 모두 인간의 탐욕의 결과가 아니던가. 또한,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존재라는 점도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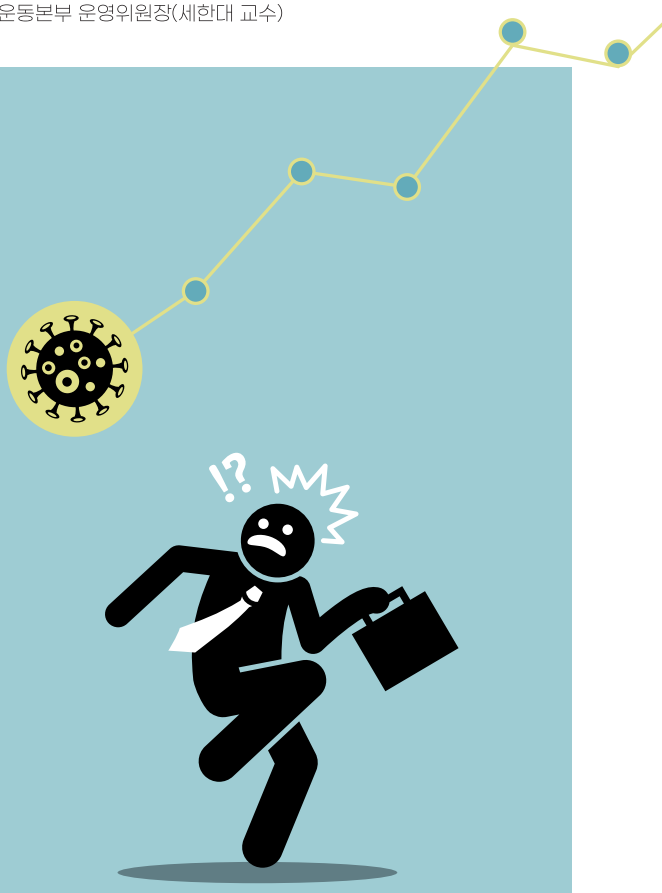
고대 역사서에 나오는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괴질은 모두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AD 2세기 로마의 안토니우스 역병은 제국 전체를 흔들었을 뿐 아니라 황제의 목숨까지 앗아갔다. 같은 시기 중국의 한나라에도 유행성 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여 막대한 인명 피해를 기록하였다. 14세기 유럽의 흑사병, 20세기 스페인 독감, 최근의 사스와 메르스 모두 상당기간 인류를 힘들게 했던 전염병들이다. 부패 역시 연원이 깊다. 뇌물이라는 단어는 함무라비 법전과 성경에도 나온다. 부패와 전염병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

팬데믹(Pandemic) 현상이라는 점에서도 양자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코로나19는 2020년 12월 말 기준 220여 국가로 확산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8천만 명을 넘었고, 176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나왔다. 세계화는 이러한 대유행을 가속했다. 부패도 관행화되면 조직 내에 급속히 확산하고 부정적인 조직문화로 자리 잡기 쉽다.

글. 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운영위원장(세한대 교수)

부패 해소를 위해 솔선과 소통으로 백신을, 청렴한 조직문화로 집단면역을





이러한 대유행을 특징으로 하는 전염현상은 모두 개인의 '이기주의'를 배경으로 한다. "나는 괜찮아" 하는 생각이 바이러스의 핵심적인 숙주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전염은 이러한 이기주의에 의해 3밀로 일컬어지는 '밀집-밀접-밀폐' 환경에서 전파되고 확산한다. 부패 바이러스 역시 이기주의를 통해 학연-혈연-지연-직장연으로 일컬어지는 밀착적인 연고주의 관행과 행위에 의해 전파되고 확대된다.

코로나19를 퇴치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는 확실한 백신의 개발이 요청된다. 백신이 개발되어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에는 예방적 활동, 즉 방역활동이 긴요하다. 우리는 이미 2020년을 지나오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등과 같은 사회적 학습을 통해 방역생활을 익숙한 삶의 풍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방역지침은 부패예방에도 적용된다. 조직 내부의 행동강령이 바로 방역지침이다. 이를 준수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이익충돌을 회피하고 부패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주기적 소독과 같은 차원에서 상시적 청렴교육과 시책의 실천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어 집단면역이 형성되어야 우리가 소망하는 코로나19 상황이 해소될 수 있다. 조직이 부패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조직 리더들의 솔선수범과 임직원의 지속적인 청렴 소통이 백신이 되어 구성원들에게 항체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부패에 대한 저항력이 향상되고 공유되면 청렴한 조직문화의 집단면역이 꽃 피울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어 각국에서 치료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백신치료와 집단면역 형성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바이러스는 인류 역사상 꾸준히 변종을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부패 역시 늘 새로운 형태의 편법과 우회적 접근이 등장해왔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손 씻기, 마스크 착용과 같은 일상적인 방역활동과 부패 예방활동은 백신치료와 함께 지속하여야 할 청렴습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HRDKorea MAGAZINE

사람과 성장을 이어주는
한국산업인력공단

NEWS

2021
JANUARY
vol. 295

01



자매결연 반구시장 화재 극복 희망 소화기 및 지원금 전달

공단은 7일, 화재로 어려움을 겪는 반구시장(상인회 회장 김창환)을 찾아 소화기 100개와 온누리상품권 100만 원을 전달했다. 소화기는 반구시장 상인회 회원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 내 배치될 예정이며, 지원금은 화재로 어려움을 겪는 상가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공단은 2014년부터 반구시장과 자매결연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최근 그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콜센터 스마트워크를 열다

공단은 2021년부터 콜센터 재택시스템을 도입하고 29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콜센터 재택근무 시스템을 통해 고객 상담사는 본인 집에서 공단 대표전화(1644-8000, 8100) 상담이 가능해졌다. 공단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콜센터 상담사의 약 40%가 동시에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콜센터 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상담사의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해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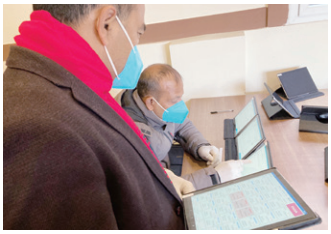


전통시장 활성화 부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상

공단은 4일,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열린 2020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 시상식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공단은 울산 혁신도시 이전 후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협력 No.1 HRD 파트너' 추진단을 설립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1기관 2시장 자매결연, 무인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온·오프라인 직매장 설치 등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지역경제(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인공지능 기술 활용 UBT평가 방식 전환 시작(외국인력선발부)

공단은 17일부터 20일, 네팔 현지에서 3회에 걸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UBT모의테스트를 실시하였다.

UBT(Ubiquitous Based Test)는 CBT(Computer Based Test)시험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모바일 기기(태블릿)를 활용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험을 시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AI 인공지능 안면인식 기술을 탑재하여, 신분확인 단계 시 안면인식을 적용, 대리응시 등의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네팔EPS센터와 현지 테스트 및 최종 검수를 거쳐 2021년도 한국어능력시험에 도입될 예정이다.



한국직업방송 공익채널 선정

한국직업방송이 2021~2022년도 사회복지분야 공익채널에 10년 연속 선정되었다.

공익채널은 방송의 상업화를 막고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공익성을 구현하는 채널로 방송통신위원회가 2년마다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한국직업방송은 2013년도부터 10년간 사회복지 분야 공익채널로 선정됨으로써 공공성과 공익성을 인정받고 있다.

개국 11주년을 맞은 한국직업방송은 스트리밍 시대에 발맞추어 유튜브와 wavve를 통해서도 일자리 콘텐츠를 서비스함으로써 언제·어디에서나·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채널로 진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직업방송은 국내 유일한 일자리 전문 채널로써 일자리 비전을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독자이야기

당신의 목소리가 궁금합니다.
'국가자격'에 대한 에피소드를 들려주세요!

'지피지기 백전백승!'
'칠전팔기 끝내합격!'
'합격까지 무한도전!'
'감동했던 순간순간!'
'이런자격 말에들어!'

국가자격에 관해 들려주고픈 이야기라면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감동적이거나 모두를 웃게 만든 이야기를 들려주신
다섯 분을 추첨해 온라인 문화상품권(3만원권)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호 당첨자

이호진 이태민 최정민 박영석 송동일
유다은 전경욱 한재윤 오유리 황민구



이번 HRDKorea 어떠셨나요?

엽서, 이메일(kyj626200@hrdkorea.or.kr/
이름, 연락처 기재)로 이번 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을
기재해 보내주세요.
당첨자는 기재해주신 연락처로 안내해드립니다.

절취선 ①

보내는 사람

이 름

주 소

전 화

우 편 엽 서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6. 5. 1 ~ 9999. 4. 30

울산우체국
승인 제40219호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수집 및 이용 목적 : 엽서 당첨자 공지 및 상품 발송
· 수집항목 : 이름, 전화번호
· 보유기간 : 동의 철회 시까지, 수신 거부 시 즉시 삭제
·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HRDKorea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교동)
한국산업인력공단 홍보실
HRD KOREA 담당자 앞 T. 052-714-8195

4 4 5 3 8

절취선 ②

○ 이곳에 구멍을 뚫어서 벽에 걸어주세요

HRD Calender

01

2021년 1월 국가자격시험 일정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3	4	5 ▪ 기술사 제123회 필기시험 원서접수(1.5~1.8)	6	7	8	9
10	11	12 ▪ 기능사 제1회 필기시험 원서접수(1.12~1.15)	13	14	15	16
17	18 ▪ 제32회 감정평가사 1,2차 원서접수(1.18~1.22)	19	20	21	22	23
24/31 ▪ 기능사 제1회 필기시험 (1.31~2.6)	25 ▪ 제58회 변리사 1차 원서접수 (1.25~1.29) ▪ 기사 제1회 필기시험(기사·서비스) 원서접수(1.25~1.28)	26 ▪ 기사 제1회 필기시험(산업기사) 원서접수(1.26~1.29)	27	28 ▪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추가원서접수(1.28~1.29)	29	30 ▪ 기술사 제123회 필기시험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큐넷을 꼭 참고해주세요!

※ 자격시험 시행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큐넷(www.Q-net.or.kr)을 참조하세요.

▪ 원서접수 일정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이번 호에 실린 기사 중 가장 만족스럽고 유익했던 내용과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앞으로 <HRD KOREA>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사보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적어주세요.

이번 호 독자이야기 부분의 의견 또는 경험담을 써주세요.(3줄 이내)

절취선 ①

절취선 ②



비밀의 정원[출처 : 인제군청]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

일학습병행 특별조치 연장으로

2021년에도 함께해요

일학습병행이란?

독일, 스위스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터 기반 학습을 한국 현실에 맞게 설계한 '현장기반 훈련'으로,
기업이 청년 등을 채용한 후 NCS기반으로 업무 현장 및 사업장 외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자격을 주는 새로운 교육훈련 제도입니다.

'20년 6월 15일 시행된 특별조치가 연장되었습니다.

기존 일학습병행 제한을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훈련을 통한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합니다.

1. 학습근로자 참여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21.6.30.)

기존	확대
• 입직 1년 이내 • 상시근로자 수의 25%까지	• 입직 **2년** 이내 • 상시근로자 수의 **40%**까지 (재직, 재학 과정 동시 실시 시 50%까지 참여 가능)

적용대상 `20.6.15.부터 `**21.6.30.**까지 **훈련을 시작한 모든 과정**(재학단계 포함)

2. 훈련과정 개발비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 '21.6.30.)

기존	확대
현재 2개 직무까지 지원	최대 **4개** 직무까지 지원 (기존 2개 직무에 추가로 2개 직무 지원)

적용대상 `20.6.15.부터 `**21.6.30.**까지 **신규로 훈련과정을 개발**하여 훈련을 시작한 모든 과정(재학단계 포함)

3. 훈련장려금이 확대되었습니다 (~ '21.12.31.)

기존	확대
학습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지원 (도제학교, P-TECH의 경우 월 30만원)	학습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지원

※ 외부평가 합격자에 대한 성과금(외부평가 합격자 1인당 '전체 훈련기간(월)×20만원')은 별도 지원(도제학교 제외)

※ 1,000인 이상 대기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훈련장려금, 외부평가 연계 성과금 미지원

적용대상 `20.6.15.부터 `**21.12.31.**까지 **훈련 중인 모든 과정**(재학단계 포함)

4. 훈련장려금과 타 사업지원금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1.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수급 가능

※훈련기간과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기간(휴직기간)이 겹치지 않으면 중복수급 가능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일학습병행 훈련장려금과 중복수급 불가

2.타부처, 지자체 인건비성 지원금 중복수급 가능

※ 타부처, 지자체의 해당 사업에서 중복수급을 금지한 경우는 제외함

적용대상 `20.6.15.부터 훈련 중인 모든 과정의 학습기업 및 학습근로자가 **지원요건 해당 시**

더 궁금하신 내용은 NAVER 일학습병행 블로그 를 검색해보세요

고용노동부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병행 KOREA DUAL PROGRAM 사람투자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이겨내자 코로나19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언제나 든든한 여러분의 HRD파트너로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한민국 대표 인적자원전문기관으로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전 국민 평생교육과 능력개발의 요람,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으로 일궈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꿈이자 희망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여러분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진심으로 응원하고 위로합니다.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